

## 月川 趙穆의 文學世界

-漢詩作品을 中心으로-

李 鍾 虎\*

### • 目 次 •

- |                      |             |
|----------------------|-------------|
| 1. 월천의 문학을 다루는 이유    | 3) 憾慨憂思의 表情 |
| 2. 한시를 통해 본 월천의 문학세계 | 3. 月川詩의 風格  |
| 1) 沈潛心得의 境界          | 4. 마무리      |
| 2) 蕭散山水의 興趣          |             |

### 1. 월천의 문학을 다루는 이유

임진왜란을 전후한 조선중기(16~17세기), 특히 宣祖年間은 선현들이 이른바 '穆陵盛世'라 칭했듯이 文運이 흥성했던 시기였다. 퇴계나 율곡 같은 碩學·宏儒가 잇달아 출현하여 조선유학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을 뿐 아니라, 三唐派 및 李東岳·權石洲·許蛟山 등 일군의 문인들이 등장하여 탁월한 문예창작을 펼쳐 보임으로써 朝鮮詞壇에 신기운을 불어 넣기도 하였다. 이같이 '목룡성세'를 주도해 간 인물들은 모두가 오랜 기간 훈구계열과의 치열한 투쟁에서 승리하여 역사무대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사림층 출신이다. 따라서 '목룡성세'를 장식한 사상 혹은 문예방면의 名篇巨作들은, 사림세력의 생기 넘치는 문화욕구가 제각기 출구를 찾아 일정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분비물인 셈이다.

'목룡성세'를 가능케 한 사림문화는 주자성리학을 향한 탐구열에 힘입은 바 크다. 퇴계는 바로 그러한 탐구작업에 남보다 앞서 뛰어들어 '앎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한편 후인들에게 '배움의 바른길'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자 힘쓴 인물이다. 사실 그는 후학들에게 '배움의 바른길'을 안내하는 途上에서 자신의 '앎의 완성도'를 보다 높여갈 수 있었다. 그는 '敎學一致'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격수양과 학문의리 양방면에 일관하여 겸손하고 진지하며 친절하고 정밀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로 인해 퇴계는 일세의 사표로 추앙되었거니와, 사후에도 傳授의 맥락이 면면이 이어져 학파를 형성하므로써, 조선학술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 安東大 漢文學科 敎授

여기서 잠시 禮安의 在地士族이 중심이 된 退溪學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안은 퇴계의 고향이며, 그가 晩年隱居에 들어가 처음 講學의 터전인 陶山書堂을 열었던 곳이다. 月川 趙穆(1524~1606)은 향당의 선배인 퇴계와 초년시절부터 왕래가 잦아<sup>1)</sup> 마치 부자관계와 같은 정분<sup>2)</sup>을 나누고 있었다. 한편 예안에 거주하고 있던 유생들 역시 도산서당을 찾아들었다. 그리하여 퇴계가 강학과 저작 그리고 서원창설 운동을 전개할 때, 늘 월천과 예안의 문도들은 뜻과 힘을 모아 그를 뒷받침했다<sup>3)</sup>. 퇴계의 高弟였던 월천은 문도들 중에 년장자로서 매사의 실무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퇴계의 理想과 憂患을 잘 알고 있었다. 퇴계 역시 월천에 대한 온정과 신뢰가 남달랐다. 두 분 사이에 왕복된 서간문들은 이같은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퇴계의 저작을 발간하고 그의 유업을 후인들에게 전수하는 과업 또한 월천을 중심으로 한 초기의 퇴계학단이 감당해냈다. 몇 차례의 行功을 제외한다면, 월천의 생애는 이처럼 퇴계를 따라 배우고 후세에 전하는 일로 시종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월천의 지위는 주자문인 가운데, 주자가 '나의 늙은 벗(吾老友)'이라 말했던 西山 蔡元定에 비견된다<sup>4)</sup>. 우리들이 師弟形象의 전범을 예시하게 될 때, 선뜻 퇴계와 월천을 입에 올리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桐溪 鄭蘊은 「月川神道碑銘」에서 “선생의 아름다운 바탕은 퇴계를 만나서 성취되었고, 퇴계의 도학(道學)은 선생을 만나서 빛나게 되었다. 선생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퇴계의 탁마를 받았겠으며, 퇴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선생의 發明을 보전하였겠는가? 이런 까닭에 내가 선생의 언행과 사업에 대해 대부분 생략하고 상세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후인들 가운데 선생을 살펴보는 자로 하여금 먼저 퇴계를 살펴보고 나서 그를 알게 하고자 함이다.”<sup>5)</sup>라 한 바 있다. 즉 ‘월천을 알려면 먼저 퇴계를 보라’는 식의 동계의 언급이 있는 후, 퇴계를 통해 월천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월천 사후로부터 현재까지 통행되어 왔다. 사실 우리는 퇴계, 혹은 예안의 퇴계학단을 떠난 월천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퇴계에 연계되어 있는 월천의 형상만을 추구하다보면 월천의 본래면목을 온전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월

1) 月川集, 附錄, 1쪽, 「神道碑銘」: 年十五, 始就退溪門下受學, 自是縱學無不觀, 律身動以禮, 退溪李先生深器重之.

2) 月川集, 卷6, 7쪽, 「祭李逢原安道文」: 先師之視我猶子弟, 我之事先師猶父兄, 余與君之家尊, 情義之密, 無間如兄弟.

3) 李鍾虎, 「禹倬의 形象과 禮安의 退溪學團」(退溪學 第4輯, 安東大 退溪學研究所, 1992)을 참조.

4) 月川集, 附錄, 2쪽, 鄭述撰 「祭文」: 早登師門, 深蒙許予, 篤信不懈, 晩守愈確, 比之朱門, 其老友之西山乎.

5) 月川集, 附錄, 6쪽, 「神道碑銘」: 謹依狀文, 撮其梗概, 而爲之說曰, 先生之美質, 得退溪而有成, 退溪之道學得先生而有光, 非先生何以受退溪之磨琢, 非退溪何以保先生之發明也, 是以余於先生之言行事業, 多略而不詳者, 欲使後之觀先生者, 先觀退溪而得之也.

천에 대한 연구<sup>6)</sup>의 완성도를 보다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월천이 월천인 까닭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찾아지기도 하지만 개별자로서 월천의 내면세계가 설명되어질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터이다. 그런 의미에서 월천의 문학은 그의 내면세계, 감성의 움직임을 엿보는데 빠뜨릴 수 없는 영역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월천시에 대한 諸家들의 논평이 후대의 詩話批評書에서 거의 보이지 않고, 월천 스스로 문학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없으며, 게다가 그가 남긴 문학작품 역시 소략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이유로 그 동안 월천의 문학이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의 저작은 후인들에 의해 여섯 권으로 갈무리된 文集이 전부다<sup>7)</sup>. 문집은 시와 산문으로 엮여져 있는데, 산문은 대부분 문학성이 약한 정론문과 실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산문을 논외로 하고 문집<sup>8)</sup>에 수록된 120여수의 한시를 통해 월천문학의 경계를 조망해 보기로 한다.

6) 그 동안 월천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퇴계와 퇴계학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 충분히 못하지만 몇 차례 월천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선행의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月川 趙穆의 現實認識과 詩世界』(張浩重, 安東大 碩士論文, 1993)

『趙穆의 人間과 思想』(尹天根, 安東文化研究 第 5輯, 安東文化研究會, 1991)

『설화에 나타난 조월천의 삶과 그 민중적 인식』(林在海, 退溪學 第 3輯, 安東大 退溪學研究所, 1991)

『겨레의 큰 스승 退溪先生의 편지, 師門手簡』(國際退溪學會慶尙北道支部, 1990)

『月川文集略抄』(柳正基編, 1985)

『退陶弟子列傳』 8, 『趙穆篇』(李家源, 退溪學報 第 10輯, 退溪學研究院, 1976)

『嶺南學脈』(大邱毎日新聞 企劃連載, 第 62-63號)

7) 이는 그가 누린 80이 넘는 생평과 陶山及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결코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다. 鶴沙 金應祖가 撰한 『跋文』에 의하면 중간에 兵火로 원고가 유실되어 겨의 백분의 일 정도만이 남게 되었다고 한다. 문집이 소략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병화로 인한 유실이라면, 간접적인 요인은 아마도 월천이 퇴계의 학문을 祖述하고 傳授하는데 힘쓴 나머지 자신의 저술에 소홀했던 데 있지 않았을까 한다. 때문에 『월천문집』을 통해서 그의 인간상을 온전히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퇴계의 저작과 금문재현들의 문집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부족을 다소라도 메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8) 본고에서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영인 간행한 『韓國文集叢刊』 제 38책에 수록된 월천집을 텍스트로 삼았다. 월천문중에서 근세에 들어와 엮은 것으로 보이는 『續集』을 열람한 바 있는데, 편집경위를 알려주는 서·발문은 없고, 260여수의 시, 17수의 제문, 4편의 논 그리고 7편의 잡저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는 분량상 본집의 배가 넘지만 내용은 예안의 溪門諸賢들과의 수창·증답한 것이 대부분이고 벼슬살이의 과정에서 느낀 심회를 읊은 작품도 적지 않다. 따라서 본집에서 엿볼 수 없었던 월천시의 또 다른 특징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밖에 초록 『壬辰倭變日記』가 필사본으로 농업 이현보 후손대에 전하고 있다.

## 2. 한시를 통해 본 월천의 문학세계

삶의 진행과정에 맞추어 월천시의 양상을 살핀다면, 초기의 시는 퇴계와 퇴계 학단에 소속된 동문 제현과 수창을 통한 정감의 교류가 우세하고, 중기는 다관객지에서 벼슬살이의 과정에서 느낀 고민과 향수, 비예안인과의 수창이 주를 이루며, 말기의 작품은 다시 예안을 무대로 처사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임란의 체험과 노년의 한적을 노래한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월천시의 제양상을 먼저 개괄적으로 검토한 다음, 논의의 중심인 월천시의 특징적 세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년보」에 의하면, 월천은 26세 되던 해에 풍기군수로 있던 퇴계를 따라 백운동 서원에 머무르면서 독서하고 있었다. 마침 영천(榮川: 영주)에서 열리는 도회시(都會試) 날짜가 임박했으나, 월천은 홀로 시험에 응시하려 하지 않았다<sup>9)</sup>. 이에 퇴계가 그 이유를 따져 물었을 때, 월천은 “본래 독서하고자 함은 글이나 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本欲讀書不爲作文也)고 답하였다고 한다<sup>10)</sup>. 월천이 말한 ‘作文’은 바로 과거시험에서 요구되는 詩·賦·論·策에 대한 製述力量을 가리키는 것이다. 독서의 목적을 작문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곧 그의 독서방향이 필시 ‘爲己之學’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일찍이 慎齋 周世鵬으로 부터 韓昌黎(韓愈)의 글 못지 않다<sup>11)</sup>고 평을 들었을 만큼 文才가 있었고, 뒷날 사마시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월천이 작문하는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전 생애를 놓고 볼 때, 詞章學을 義理學과 같은 비중으로 중시하거나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이는 그가 문예를 의리학에 종속시켜 이해하려 했음을 알게 해 준다. 따라서 그의 문학세계도 의리학에서 요구하는 내용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퇴계나 예안의 퇴계학단과 월천 사이에 이루어진 수창시에서도 정감의 교류가 표현되는 이면에는 언제나 學問義理가 연결고리로 작용하였다<sup>12)</sup>. 그런가 하면,

9) 月川集, 年譜, 3쪽, ‘二十八年 己酉條를 참조.

10) 앞의 글, 같은 곳.

11) 月川集, 年譜, 2쪽, ‘二十三年 甲辰條를 참조.

12) 月川集, 권1 머리에 실려 있는 「謝退溪先生見臨」(「附次韻」; 退溪先生)과 「次退溪先生」(「附原韻」; 退溪先生)이 이에 해당하는 시라 하겠다. 전자는 월천이 36세에 퇴계의 왕림을 받고 배움을 간절히 청하자, 퇴계가 훌륭한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 함께 절차탁마하자고 권유하는 내용이고, 후자는 41세에 지은 시로 마음의 誠明한 경지를 징험함으로써 자연의 光風霽月한 경지를 체득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가 사제간의 정의를 훈훈하게 느끼게 해주는 작품들이다. 월천은 그밖에 퇴계 사후 스승의 학덕을 존모하고 도산시절을 회상하는 작품들도 남겼다. 즐거운 동문들과의 교유를 노래한 것 가운데, 창작의 배경을 기술한 장문의 머리글이 붙어 있는 “元來景物自天成, 人自欣然若有情, 但得常存瀟灑意, 如何鄙吝更萌生.”(月川集, 권1, 2쪽)을 보면, 여기서도 山水自然의 風光에 매료되어 流連하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청정쇄락한 자연의 기상을 내면화하려는 월천의 노력이 엿보인다. 이같은 시적 경계는 陶淵明이 성취한 田園詩의 경계와는 다르고 瀟灑風雅의

월천시의 일정 부분은 宦路에서 생성된 고민과 향수가 표현되어 있다. 그는 43세에 참봉에 제수된 이래 81세에 참판의 직위에 이르기까지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 조정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부임한 것은 서너 차례에 불과하였고 그것도 대개 현감이나 군수와 같은 외직에 한정되었다<sup>13)</sup>. 이는 처사적 지향이 두드러진 그의 出處觀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처사적 지향이 아무리 강했다 해도 월천은 一命도 받지 않은 純粹處士는 아니었다. 그 역시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책임진 生活人이었기에 세속의 名利가 늘 그를 유혹하였다. 그로 인해 그는 高尚한 清隱의 명예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월천이 마음 속에서 명리와 투쟁하는 정황을 그리고 있는 「磨刀吟」은 매우 인상적이다.

|                      |                      |
|----------------------|----------------------|
| 홀로 차가운 집에서 잠을 자고서    | 獨宿寒齋罷                |
| 꼭두 새벽 일어나 문밀치고 나오네   | 凌晨排戶出                |
| 숫돌에서 칼날이 새롭게 갈려 나오니  | 寸鐵發硯新                |
| 밝은 빛이 아침 햇살에 번쩍거리네   | 精光耀朝日                |
| 칼자루를 손에 쥐고 무엇하려 하는가  | 手撫欲何用                |
| 명리에 맺힌 것을 찢어서 끊으려네   | 斫斷名利結                |
| 어허라! 이 마음 입으로 말하려 하나 | 喟然心語口                |
| 감히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겠네     | 不敢向人說 <sup>15)</sup> |

그는 칼날을 숫돌에 버려 단숨에 명리의 끈을 내려쳐 싸둑 잘라 버리고 싶다고 했다. 결단의 순간을 꼭두 새벽으로 설정한 것은 그만큼 결행의 절박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월천은 명리의 끈을 끊었다고 말하지 않았고, 끝구에서 도리어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그가 말할 수 없던 고민은, 정령 명리가 칼로 자르거나 끊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데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명리와의 단절을 가로 막는 월천 개인의 현실조건일 수도 있다. 시에서 悲壯함과 無力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명리와 완전히 결별하지는 못한 그의 고민은 환로에서의 불안정한 심리로 전이되어 나타난다.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태평리에서 묵으면서 지었다고 하는 다음 작품은 이같은 월천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북 두드리고 종 치니 바닷새가 근심스러워 하고      擊鼓撞鐘海鳥愁

시정신과 가깝다. 이렇듯 월천의 시는 說理的 색채가 짙다.

13) 조정의 부름을 사양하는 것이 산림처사의 미덕이다. 그러나 거듭되는 부름에 대해 때에 따라 진퇴를 반복하는 예가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처사의 이중성이 내재되어 있는 듯하다. 진퇴를 거듭하므로써 仕宦慾이 있다는 혐의를 피하고, 보다 높은 벼슬을 기대하려는(立異要名) 심리로 없지 않았던 것이다.

14) 張浩重의 論文(1993), 第 3章「趙穆의 政治意識과 處世觀」을 참조.

15) 月川集, 권1, 11쪽, 「磨刀吟」

|                             |                        |
|-----------------------------|------------------------|
| 아로새긴 난간 옥같은 섬돌에 들꽃이 부끄러워 하네 | 雕欄玉砌野花羞                |
| 예로부터 만물은 모두 하늘이 부여한 바가 있으니  | 從來品物皆天賦                |
| 장차 늙고 게으른 몸으로 자유롭게 살리라      | 且放衰慵得自由 <sup>16)</sup> |

북소리와 종소리는 도성에서 시각을 알리는 소리이다. 아로 새긴 난간과 옥같은 섬돌은 화려한 궁궐의 정경이다. 월천은 이러한 도시적 분위기가 바닷새와 들꽃에게는 낯설기에 근심하고 부끄러워한다고 했다. 이렇듯 월천은 향촌출신인 자신을 海鳥와 野花에 비유하여 익숙치 못한 현실조건으로 인한 내면의 불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익숙치 못한 현실조건은 그에게 부자연한 인내를 요구했지만, 그는 그로부터 자유롭고자 했다. 그냥 하늘이 자기에게 부여한 바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다. '늙고 게으른 몸'은 처사로서의 자기검사이지만 이면에는 환로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뜻이 숨어 있고 명리와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써 보다 고상한 처사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sup>17)</sup>.

고상한 처사의 운치는 주로 만년의 작품에서 자주 나타난다.

|              |                      |
|--------------|----------------------|
| 격양가 삼천 수     | 擊壤三千首                |
| 푸른 솔 일만 주    | 蒼松一萬株                |
| 내 나이 일흔      | 皁翁年七十                |
| 풍월이 강호에 가득차네 | 風月滿江湖 <sup>18)</sup> |

이 작품은 월천 71세에 지어진 시인데, 書堂과 그 주변이 작시활동의 무대이다. 이미 환로에 대한 집착을 버렸기에 모든 생활이 山水田園으로 수렴되었다. 自然親和의 서정이 돋보이고, 審美意識이 邵康節의 『擊壤集』이 보여주고 있는 淸淨灑落한 기상에 경도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렇듯 산림에서 한가하게 읊조린 작품들은 대체로 物外閒適하는 처사의 정취가 형상화되고 있다<sup>19)</sup>.

이제 「月川文集」을 꼼꼼히 독파한 眉叟 許穆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이다. 미수는 월천문집의 서문에서 월천의 시세계를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16) 「宿太平里」: 時辭職下鄉.

17) 이 밖에도 이러한 유형의 시들로 「蕩春臺次韻」·「校正廳次前韻」(권1, 10쪽), 「得琴夾之應夾撫之應撫書」·「鴻山澄清樓次李陽原」(권1, 5쪽), 「連日風雨思鄉偶吟」·「出城登舟」(권1, 8쪽) 등이 있다.

18) 月川集, 권1, 14쪽, 「書堂閒吟」.

19) 「書堂閒吟」(月川集, 권1, 12쪽)은 월천시의 물외한적한 미의식이 잘 체현된 작품이다. “春晚湖山物色開, 一堂高處意悠哉, 墨峯相對雲舒卷, 硯道長看鷺去來, 曲水重洲饒勝概, 蒼松白石絕纖埃, 散人七十猶強健, 酒興詩狂兩傑魁.” 70세에 지은 이 작품은, 세속의 명리를 멀리하고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하며 노년을 보내는 월천의 기상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次金達遠」(권1, 12쪽): “千峯萬壑一瓊瑤, 坐想高齋人似玉, 寒窓冷榻月川翁, 敲飲氷江肱亦曲.”에서는 老年에 펼쳐진 安貧樂道의 세계가 그려지고 있다.

옴조린 작품들은 마음을 가라앉혀 곰곰히 생각하여 깊이 깨우친 나머지에서 얻었거나, 조용하고 한가한 산수자연의 즐거움에서 얻었으며, 몸소 난세를 만나 한스럽고 분한 마음과 걱정하는 생각으로 지은 작품들이어서, 모두 사도와 사인에게 유익하니, 진실로 덕이 있는 자라야 또한 훌륭한 말이 있다고 하겠다.<sup>20)</sup>

허미수의 안목을 빌어 월천시의 성격을 재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월천의 시는 학문의리와 심성수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득한 경지를 표상하고 있다. 둘째, 월천의 시는 산수자연과의 친화를 통해 생성된 소산한 흥취를 표출하고 있다. 셋째, 월천의 시는 임진왜란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에 대한 우국충정이 형상화되어 있다<sup>21)</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허미수의 견해를 그대로 원용하여 소재목으로 삼아 월천시의 특징적 국면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1) 沈潛心得의 境界

‘침잠심득의 경계’란, 부단한 독서와 성찰(居敬窮理)을 통해 人性이나 宇宙에 대한 궁극의 이치(天理)를 自然이나 人事 속에서 터득한 형이상학적인 경계를 말한다. 침잠심득의 경계를 형상화한 작품은 도학의 理趣를 함축한 說理詩에 속한다. 이는 마치 禪詩가 禪學의 禪趣를 고도의 은유와 상징으로 포장하여 함축해내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침잠심득의 경계를 형상화하는 일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주관의 깨달음을 유한한 언어에 의존하여 객관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悟道에 따른 희열의 정감이 流露될 수도 있으나 그것마저도 주관적 체험에 그치는 것이어서 독자들로서는 쉽게 공감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깨달음이 감성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이지적 활동의 결과이기에 독자들은 심화된 이지적 연상활동을 통해서만 그 경계를 체인할 수 있다.

미수는 월천의 시에서 理趣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의 안목을 가지고서는 문집에서 그에 걸맞는 작품을 찾아내기 어려웠다. 아마도 미수는 침잠심득의 경계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았던 듯하다. 다시 말하면 학문의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나 학자로서의 자기인식, 혹은 후학들에 대한 도학적 설교 등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을 침잠심득의 경계로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한다.

20) 月川集, 許穆撰 序: 又其咏嘆吟哦之發, 或得於沈潛心得之餘, 或得於蕭散山水之娛, 或身逢亂世憾慨憂思之作, 皆有益於斯道斯人, 信乎有德者且有言也.

21) 이러한 특징에 따라 월천시를 道學詩·山水詩·憂國詩로 나누어 볼 법하다. 그러나 이같이 세가지로 表題하려면, 우선 용어 자체의 개념과 사용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필자의 역량으로는 용어에 대한 명료한 인식에 도달해 있지 못하다. 설사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일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적지 않은 난점이 예상된다.

몇 가지 작품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                    |                      |
|--------------------|----------------------|
| 봄을 보내나 봄은 어디로 가며   | 送春春何去                |
| 봄이 오나 어느 곳에서 오는가?  | 春來甚處因                |
|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지만 | 無來亦無去                |
| 절로 한결같은 봄이 있네      | 自有一般春 <sup>22)</sup> |

시의 제목을 「送春」이라 했으나, 결코 그의 마음에서 봄은 떠나지 않았다. 월천은 '절로'있는 봄은 본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궤도를 따라 말없이 운행하는 봄을 발견한다. 天理를 감지한 것이다. 그가 느낀 천리는 변함없는 자연의 섭리인바, 번복을 거듭하는 인간의 세계와는 너무나 괴리되어 있다. 인간의 세계는 어떠한가?

|                        |                        |
|------------------------|------------------------|
| 세상길 구불구불 천갈래 만갈래       | 世途詰曲千般梗                |
| 아무 일도 못한채 부질없이 늙은 나    | 老我空疎一事無                |
| 벽엔 푸른 등불 책 몇 권         | 半壁青燈書數卷                |
| 바야흐로 알겠거니, 오늘이 '참 나'임을 | 方知今日是真吾 <sup>23)</sup> |

월천이 본 '세상길'은 꼬불꼬불 뒤틀려 있는 양의 창자(九折羊腸)와 같다. 그 만큼 세상길은 헤쳐 나가기 힘들다. 게다가 월천은 스스로 재치있게 험난한 길을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 길에 자의든 타의든 몇 차례 발을 들여 놓고 왕래하였지만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한채 그만 몸만 늙어 버렸다. 그러던 어느날 월천은 예상롭지 않은 새벽을 보았다. 잠에서 깨어나 덩그러니 앉아 있노라니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푸른 등'과 '몇 권의 책'이 있을 뿐이었다. 등불이 사물의 어두움을 밝혀준다면 서책은 마음의 몽매함을 덜어 줄 것이다. 월천의 마음에 등이 켜지기 시작하였다. 예전에 희미했던 그런 빛이 아니었다. 대낮처럼 밝게 그의 마음을 비춘 것은 바로 '참 나'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독서하는 선비가 진정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자기인식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작시의 시점이 새벽인 점이다. 아마도 조용한 밤이나 새벽이 '침잠심득'하기에 적합한 때문인 듯하다. 그렇다면 한 밤중에 깨어난 월천의 마음 자리는 어떠한가?

|                       |         |
|-----------------------|---------|
| 한 밤중에 꿈을 깨니 외론 등불 푸르고 | 三更夢罷一燈青 |
|-----------------------|---------|

22) 月川集, 권1, 12쪽, 「送春」.

23) 月川集, 권1, 5쪽, 「曉坐」.



|                               |                        |
|-------------------------------|------------------------|
| 원화(津液)를 빨아 삼키니 뱃속까지 맑아지네      | 嚙漱元和入骨清                |
| 모든 소리 전부 그치니 모든 상념이 그치고       | 萬籟俱休諸念息                |
| 이 때에 마음의 경지 모두 허명해지네          | 此時心地儘虛明                |
| 허명함 깨닫는 자리가 바로 참다운 마음이니       | 虛明覺處是真心                |
| 삼라만상이 밝게 거울 속에 비치는 듯하네        | 萬象昭如鏡裡臨                |
| 어찌 한 티끌이라도 날아와 가리움을 허용하리오마는   | 何許一塵來掩得                |
| 앉아서 밝은 거울 보노라니 가린 것이 오히려 심하구나 | 坐看明鏡蔽還深 <sup>24)</sup> |

삼경이면 한 밤이다. 꿈을 꾸었던가? 월천은 일어나 ‘푸른 등’의 심지에 불을 켜힌다. 도가의 경전인 『中皇經』에 “원화를 먹고 오곡을 물리친다.(服元和, 除五穀.)” 했는 바, 그 注에 “원화를 먹는다 함은 진액을 삼킨다는 말이다.(服元和, 謂嚙津液也.)”라 하였다<sup>25)</sup>. 입안에서 침이 나오도록 빨아내어 씹은 다음 조금씩 삼키는 것은 도가에서 행하는 양생술의 하나일 터이다. 월천도 그 술법을 행하여 기운을 맑게 하고자 했다. 그러는 사이에 자연의 소리는 모두 그치고 잡념이 사라졌다. 월천은 그 순간 몸을 잊고 ‘마음 자리’를 찾아 나선다. ‘虛明’이란 장자가 『人間世』에서 말한 ‘虛白’<sup>26)</sup>과 통한다. 마음이 純淨하여 無欲한 상태가 허백이다. 속 마음 자리에 티끌만한 욕심도 끼어 있지 않은, 온통 깨끗고 맑은 경지가 허명이다. 월천은 허명이 곧 ‘참다운 마음(真心)’이라 했고, 삼라만상을 빠짐없이 밝게 비추이는 거울의 작용도 가능하다고 믿었다. 거울은 먼지를 닦아내는 노력이 잠시라도 그치면 때가 끼어 이내 곧 제 몫을 감당해 내지 못한다. 大學에서 ‘明明德’하는 수양공부를 강조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월천은 허명한 경지를 징험했다는 기쁨을 뒤로 하고 다시 마음에 물욕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操存’공부를 늦추지 않는다. 다른 시에서 월천은 ‘한 밤의 사색’을 이렇게 노래 하였다.

|                      |                        |
|----------------------|------------------------|
| 봉 마다 눈 가득 하늘엔 달빛 가득  | 雪滿千峯月滿天                |
| 허명한 방 하나 절로 초연터니     | 虛明一室自超然                |
| 유인이 꿈 깨어 창 밀치고 일어나   | 幽人夢覺排窓起                |
| 맹자의 「아기판」을 거듭 거듭 외우네 | 三復鄒翁夜氣篇 <sup>27)</sup> |

의도하지 않은 ‘夢覺’이 이루어졌다. 우연히 잠에서 깨어나 보니 세상이 온통 은빛으로 바뀌었다. 개인 하늘에 떠오른 달빛을 받아 눈 덮힌 산봉우리가 더욱 빛나는 밤이다. 등을 켜지 않아도 종을 성싶은 ‘허명’한 방은 이미 신선이나 묵자갈 청청 그 자체였다. 그곳에 앉아 있던 월천은 자기도 모르게 창문을 밀치고 일어서

24) 月川集, 권1, 15쪽, 「夜起呼燈, 遂成首尾一體」.

25) 『中文大辭典』을 참조.

26) 莊子, 「人間世」: 虛室生白, 吉祥止止.

27) 月川集, 권1, 12쪽, 「偶吟」

본다. 자연의 맑은 기운을 맛보기 위함이다. 맹자의 「夜氣篇」은 곧 孟子가 「告子」 장구에서 “양심이 욕심에 여러 차례 눌러 없어지게 되면 밤 사이에 생겼던 맑은 기운을 보존하지 못하게 되고, 밤 사이에 생겼던 맑은 기운을 보존하지 못하게 되면 금수와 그 차이가 멀지 않다.”<sup>28)</sup>고 한 대목을 가리킨다. 월천은 이 대목을 반복해서 외워본다. 무엇 때문일까? 밤 사이에 생성된 자연의 맑은 기운은 사물과 접촉하여 한시라도 물욕이 침투하면 사라져 버릴 위험이 있다. 放心은 금물이다. 따라서 이 작품 역시 ‘存心養性’의 과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9)</sup>

월천은 無情物을 등장시켜 간단없는 操存공부의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                      |                      |
|----------------------|----------------------|
| 강가에 이름 없는 바위         | 江上無名石                |
| 굳세어 마음을 움직이지 않네      | 頑然不動心                |
| 아무도 너의 틈을 엿보지 않지만    | 無人窺汝隙                |
| 해만은 정녕 높은 하늘에서 바라보리라 | 天日正高臨 <sup>30)</sup> |

월천은 청량산을 지나다 골짜기 입구에서 발을 멈추었다. 산 앞을 가로질러 흐르는 물 가운데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이름 모를 돌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딱딱한 돌의 질감에서 꿈쩍도 않을 듯한 기상(心)을 읽는다. 그 돌이 요동칠 것이라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사람은 몰라도 하늘은 돌의 움직임을 안다. 때문에 월천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돌이 마음을 움직여 틈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너의 틈’이란 곧 사욕의 침투로 인해 동요하는 심리상태이다. 당초에는 마음을 不動하리라 다짐해도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곧잘 처음의 마음을 잊기 마련이다. 월천은 그같은 인간은 간사한 마음을 돌을 빌어 들추어 내었다. 정리하면 이 시는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마음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삼간다.(君子慎其獨)’는 大學의 가르침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sup>31)</sup>

학문하는 도리를 자득했을 때, 생성된 意境도 ‘침잠심득의 경계’로 볼 수 있다.

28) 枯之反覆, 卽其夜氣不足以存, 夜氣不足以存, 卽其違禽獸不遠矣.

29) 월천은 「閑居偶吟」(月川集, 권1, 2쪽)에서 “雪月清明天萬里, 胸襟灑灑夜三更, 纖塵不動窓櫺靜, 看得香烟一縷生.”이라 한 바 있는데, 이 역시 극도로 고요하고 경건한 심아의 사색을 통해 청명하고 쾌락한 경지를 체험하는 ‘침잠심득’의 경계가 잘 표현되고 있다.

30) 月川集, 권1, 5쪽, 「題清涼洞口江石」.

31) 월천은 또 다른 무정물로 ‘장림’과 ‘죽령’을 끌어대어, 인간사를 논하기도 하였다. 「竹嶺」(月川集, 권1, 4쪽) 바로 그것이다. “長林不長林, 竹嶺無竹嶺, 大抵實不存, 人間幾林嶺.” 월천은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모두 사라져 버린 현실에 실증이 났다. 그의 눈에 비친 16세기 조선은 ‘實’과 유리된 명분이 판치는 세상이었던 것이다. 비록 5언절구의 短型詩이지만 월천의 원숙한 현실인식이 바탕되어 있다. 「次高叔明應陟」(月川集, 권1, 6쪽)에서도 월천의 현실인식이 드러나고 있는데, 曲直과 黑白이 뒤섞인 왜곡된 세태에 대해 안타까워 하면서 至理를 自得한 ‘大道人’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

|                             |                        |
|-----------------------------|------------------------|
| 밥 먹으면 곧 배가 불러움이 기특하다 했으니    | 得食還成一飽奇                |
| 심상한 도리도 깊이 생각하는 데서 얻어지는 법   | 尋常道理在深思                |
| 판판하게 깔린 길을 걸어가면 원래 막힘이 없거늘  | 平鋪放著元無礙                |
| 정말 우습구나! 궁벽진 길에서 완적이 슬퍼한 것을 | 絕笑窮途阮籍悲 <sup>32)</sup> |

월천은 尾注에서 “정이천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한가지 기특한 일이 있으니, 항상 밥을 먹으면 반드시 배가 불러진다.(伊川云: 某有一奇特事, 每食必飽.)”라 하여, 첫구의 출처를 밝혀 놓았다. 마지막 구에 보이는 ‘阮籍悲’란 『晉書·阮籍傳』에 실려있는 이야기에서 用事한 것인데, 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완적(魏人)이 한 때 경솔하게 홀로 수레를 타고 밖을 나선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徑路를 따라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다가 수레바퀴 자국이 다한 곳에 이르러 그만 통곡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sup>33)</sup>. 월천은 밥먹고 나면 배부르다는 평범한 진리도 깊이 생각해야(深思) 얻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일상과 평범을 등지고 딴 길(異端)을 추구하다 보면 후회가 남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로 볼 때, 월천은 이 시에서 ‘도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강조하여, 학문하는 도리는 日用行事 어디에나 있지만, 이를 체득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아울러 말하고자 한 것이다<sup>34)</sup>.

## 2) 蕭散山水의 興趣

詞典의 문자풀이를 보면, ‘蕭散’이란 ‘蕭灑’와 동의어로 舉止나 神情, 風格 등이 自然하여 구속되지 않음을 형용하는<sup>35)</sup> 것이다. 그러므로 ‘蕭散山水’의 흥취란 산수를 벗하며 소요하는 가운데 생성된 한가로운 흥취이다. ‘소산산수의 흥취’는 따라서 인위와 조작이 배제된 자연한 산수놀이에서 얻어질 수 있다.

32) 月川集, 권1, 8쪽, 「次柳君實世茂」.

33) 이로부터 ‘窮途에서 悲嘆해 하는 것’을 ‘阮籍痛’ 혹은 ‘阮籍悲’라 한다.

34) 「次襄明瑞龍吉」(月川集, 권1, 14쪽)은 그가 지적한 ‘학문하는 도리’와 ‘평범한 진리’의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作德常難得日休, 身如泛泛水中舟, 光陰荏苒年還迫, 詞說紛綸道轉悠, 會見文瀾存地步, 須從學海發天遊, 孔顏心法義農意, 萬古同然是葛裘.” 첫구는 書經「周官」편에서 말한 “作德, 心逸日休, 作偽, 心勞日拙”라는 대목을 끌어 쓴 것이다. 시에서 월천은 인생의 유한성을 부각시켜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학문하는 도리는 법상을만한 스승을 만나 타고난 소양을 발휘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儒家의 心法이야말로 불변의 진리임을 강조하였다.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살 수 없듯이 늘 공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寄李宏仲德弘」(月川集, 권1, 10쪽)도 학문하는 도리를 밝힌 작품이다. “論學何須向別人, 要當於已反求真, 功名有數元前定, 莫把榮華枉費神.” ‘다른 사람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곧 세속의功名추구에 기여하는 ‘爲人之學’을 행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월천은 모든 진리를 ‘자기의 몸에서 찾는(反求諸己)’ ‘爲己之學(心學)’이 학문의 본령이라고 보고 있다.

35) 漢語大詞典(中國漢語大詞典出版社, 1992), 582쪽, ‘蕭散’條를 참조.

구름 밖 수많은 푸른 산봉우리 보았다가  
가을바람 부는 돌길 막대 짚고 찾아가니  
처음 오르기 전에는 다리 아플까 근심스럽더니  
높은 곳에 오른 뒤엔 가슴이 시원해져 기쁘더라  
붉은 노을은 아득히 멀리 하늘에 닿아 있고  
하얀 태양은 빙빙돌면서 세월을 만드는구나  
굽어보니 인간 세계는 백만마리 모기 떼 같고  
티끌 한 점 없는 곳이라 달빛이 옷깃에 가득차네

嘗看雲外碧千峯  
石逕秋風杖策尋  
初未上時愁著脚  
及登高後喜開心  
丹霞縹緲隣霄漢  
白日低徊作古今  
俯視人寰蚊百萬  
一塵無處月盈襟<sup>36)</sup>

산행에서 일어난 감흥을 노래한 시이다. 힘들게 돌 길을 걸어 오른 월천은 산 정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열려짐을 느낀다. 시의 후반부는 天(노을과 태양) · 地(인간세)를 俯仰하는 사이에 낮이 밤으로 바뀌고 있다. 그에 따라 정상에서 느꼈던 灑落한 감흥이, 다시 속세와 신선계를 대비하는 수법을 통해 淸淨美의 感受로 전이되고 있다. 월천의 산수흥취는 이처럼 자연정경(공간)의 변모를 통해 시간의 변화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동헌 창 너머 바라 보기 그 몇 해이던가  
백두로 찾아와 올라보니 세속 근심 씻어지네  
정신이 우주의 기운 너머에서 노닐고  
포부는 삼한이 할거하던 시절을 좁게 느끼네  
천리에 깔린 안개구름은 눈 밑에서 돌아가고  
백년도 못 사는 인생이 마음의 휴식을 얻었도다  
어지러이 학 타고 난새 탄 수많은 이들이  
모두 우리 다리 아래 무리들일세

相對軒窓歲幾周  
白頭來躡遶塵愁  
神遊六合鴻濛外  
志隘三韓割據秋  
千里烟雲歸眼底  
百年身世得心休  
紛紛駕鶴驂鸞子  
皆是吾曹脚下儔<sup>37)</sup>

年譜에 따르면, 월천은 53세 되던 해에 봉화현감에 제수되자, 사직소를 올렸지만 윤택을 받지 못하고 임지에 부임하게 된다. 위의 시는 그로부터 2년 뒤인 55세(1578년 4월) 때에 청량산 축음봉 정상에 오르고 나서 솟구친 산행의 흥취를 노래한 것이다. 그 때까지 월천은 봉화현감으로 재임하면서 향교를 중수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처구의 '軒窓'과 제 6구의 '心休'는 그같은 상황이 잘 투사되어 있는 시어이다. 청량산은 안동부의 명산으로 경관이 빼어나기로 이름이 나 있거니와, 퇴계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어, 퇴계학과 문인들이 자주 찾아 들곤 하였다. 청량산을 늘 접하고 살았던 월천이었으나, 벼슬살이로 인해 한 동안 산행을 하지 못하였다. 동헌 너머 대하던 청량산을 오른 뒤, 예의 쇠락한 흥취를 만끽하고 이내 호연한 기상을 뽐내기까지 한다. 정신(神)과 포부(志)가 가없는 우주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한껏 부풀어 올라 있다. 시상이 꺾기는 제

36) 月川集, 권1, 4쪽-5쪽, 「石崙雨留」.

37) 月川集, 권1, 7쪽, 「登祝融絕頂」.

5-6구에서 월천은 자연을 관조하는 눈빛으로 자욱한 안개구름을 바라본다. 그 순간,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의 희열에 빠지고 만다. 그는 아마도 청량산을 속세와 신선계를 갈라놓은 경계로 여겼던 듯하다. 마지막 聯에서, 그는 충융봉 정상을 향해 올라오는 등반객들의 움직임을 내려다 보고 다시 한 번 호기를 부린다. '駕鶴驂鸞'은 '신선이 된다'는 속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는 신선이 되었다기 보다 '신선의 경지에 오르려는 자'로 이해하는 편이 온당하다. 월천에게 있어 청량산행은 곧 신선세계에 오르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어서 下界에서의 '소산산수의 흥취'를 엿보기로 하자.

우연히 흥이 나서 강 언덕을 지나  
옛 자취 거듭 찾으니 돌 길이 높구나  
반 나절 한담하며 들놀이 정취 이루니  
촌옹·계로가 모두 우리 무리일세

偶然乘興過江皋  
舊跡重尋石逕高  
半日閒談成野趣  
村翁溪老總吾曹<sup>38)</sup>

강호를 배경으로 들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와운대에서 지었다고 했으니 그가 찾은 옛 자취는, 필시 추억 속에 남아 있을 퇴계와 함께한 溪山風流의 장소였을 것이다. 그런데 들놀이가 '偶然'히 일어난 興을 타고 시작되어, 반 나절의 '閒談'으로 고조되고 있다. '蕭散'의 자구풀이에서 보았듯이, '우연'과 '한담'은 자연한 '절로'의 경계를 구현하기에 용이한 시어이다. 앞서 산행의 고상한 흥취와는 다른 평범하고 소탈한 기상이 느껴진다.

발걸음을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산수놀이는 가능하다. 산행이 動的인 산수놀이라면 일정한 장소에서 앉아 가만히 자연을 완상하는 것은 靜인 산수놀이이다.

영지산 남쪽으로 빼어난 푸른 부용봉  
옥 같이 서있는 정정함은 절세의 모습  
한 줄기 물이 돌아 만고에 흐르고  
못 산들 병풍처럼 둘러 절로 천겹 되었네  
경치가 가없는 못 가운데 비친 달  
풍상에 변하지 않는 집 뒤의 소나무  
기거하고 배회하며 육십의 나이되었더니  
작은 창에 한가로이 앉아 앞산 봉우리 세어보네

靈芝南秀碧芙蓉  
玉立亭亭絕世容  
一水環廻流萬古  
群巒屏擁自千重  
無邊景致潭心月  
不變風霜屋後松  
偃仰徘徊年六十  
小窓閒坐數前峯<sup>39)</sup>

이 시는 정적인 산수놀이가 형상화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시인의 視點이다. 월천은 먼저 부용봉의 기상을 묘사한 뒤, 부용봉 안팎의 산수를 그렸고, 다시 자신이 앉아 있는 집 앞의 연못과 집 뒤의 소나무를 예찬하더니 급기야는 창너머

38) 月川集, 권1, 14쪽-15쪽, 「臥雲臺 次金施普澤龍」.

39) 月川集, 권1, 6쪽-7쪽, 「偶吟」.

앞산 봉우리에 이르러 자신의 無心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정적인 산수놀이와 형상화된 작품은 대체로 시인의 시점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다가 일정한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구도는 '蕭散'한 흥취를 자아내게 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                             |                        |
|-----------------------------|------------------------|
| 강굴이는 은 빛이요 산봉우리는 옥 빛인데      | 銀作江廻玉作巒                |
| 이내 몸은 야학처럼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도다    | 身如野鶴抱孤寒                |
| 수많은 소나무 한결같이 푸르고 천 자나 높이 솟아 | 萬松一碧長千尺                |
| 그 정신이 좋아서 달빛 타고 바라보네        | 好把精神帶月看 <sup>40)</sup> |

大雪이 내린 후 '閒居'의 서정이 정갈하게 유로된 작품이다. 작품의 구도로 보건대, 정적인 산수놀이의 흥취를 노래했다고 하겠다. 제 1-2구에서 江-山-人을 묘사하였고, 3-4구는 松과 月을 등장시켰다. 모든 사물은 대설로 인해 제 빛을 감추었지만 소나무만은 오만하게 본색을 잃지 않았다. 때문에 시인은 소나무의 기상을 사랑한다고 했고, 달빛을 빌어 흥취를 고조시켜 나가고 있다<sup>41)</sup>.

### 3) 慷慨憂思의 表情

陶山書院 從享時「賜祭文」의 한 대목에 “임진년 섬오랑캐가 창궐하자, 강개한 마음으로 눈물을 씻고, 병사를 모집하여 적을 쳤고, 척화를 반대하는 소장을 올렸으니 사의가 준엄하였다.”<sup>42)</sup>고 했듯이, '감개우사'의 충정은 월천의 시세계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먼저 임란이 일어나던 해 5월경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작품을 통하여 '감개우사'의 충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                      |       |
|----------------------|-------|
| 예로부터 동방의 예의 바른 땅이    | 千古衣冠地 |
| 왜놈에게 곤란을 당할 줄 어찌 알았나 | 那知困海戎 |
| 임금께서 먼 피난길에 고생하시니    | 君王勞遠駕 |
| 변경엔 정녕 바람도 높았으리라     | 邊塞正高風 |
| 달은 처량한 빛깔을 띠었고       | 月帶淒涼色 |
| 산은 참담한 모습을 머금었네      | 山含慘慘容 |
| 이·곽같은 용장이 없지 않으리니    | 非無李郭勇 |
| 난을 평정하는 공이 없을손가      | 豈乏蕩平功 |

40) 月川集, 권1, 11쪽, 「大雪後 閒居獨詠」

41) '蕭散山水'의 興趣를 논함에 있어, 필자는 說理의 성격이 있는 작품은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음을 밝혀 둔다.

42) 月川集, 附錄, 1쪽, 「賜祭文」: 奧在壬辰, 島夷猖獗, 慷慨雪涕, 募兵討賊, 抗疏斥和, 辭義凜烈.

|                        |                      |
|------------------------|----------------------|
| 종사를 우러러 말없는 도움을 바라고    | 默佑瞻宗社                |
| 하늘을 우러러 은밀한 구원을 바라네    | 陰扶仰昊穹                |
| 서생으로 부질없이 칼을 어루만질 뿐    | 書生空撫劒                |
| 적을 무찌르지 못한 것이 너무도 한스럽네 | 深恨未推鋒 <sup>43)</sup> |

전반부는 「甲午陳情疏」<sup>44)</sup>에서 진술한 심회와 같이, 치욕적인 전란의 발발과 선조의 의주몽진에 대한 분개한 심정을 비장하게 노래하였고, 후반부는 전란이 평정될 것에 대한 기대와 무기력한 서생의 고민을 심각하게 표출하였다. 월천의 시에서 '刀'와 '劒'이 몇 차례 나타난다. 월천에게 있어 '칼'은 決斷을 표상한다. 결단의 대상은 內外, 즉 개인과 국가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인적으로 名利와 같은 사욕을 끊어 버리거나<sup>45)</sup>, 국가적으로 왜적의 침략을 물리칠 때 '칼'이 동원된다. 어떤 경우이든 '淸淨'한 세계의 실현을 목표로 추구된다. 사욕을 제거해야만 마음 자리를 '虛明'하게 만들 수 있고, 왜적을 소탕해야만 禮義가 빛나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천은 늘 '칼'을 갈거나 잡고 있을 뿐, 대상을 향해 과감히 휘두르지는 못했다. 그로 인해 월천의 고민은 더욱 점증되어 '恨'을 남기게 된다. 그런가 하면 '李郭'과 같은 인물은 용기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곽은 당나라 '安史의 난'을 평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李光弼과 郭子儀를 말한다. 월천은 이들과 같이 용기있는 영웅의 출현을 통해 왜란을 평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시를 지을 당시에는 객재우나 이순신의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았을 때여서, 월천이 이들을 이·곽으로 지목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때, 임란은 이순신과 같은 무장과 객재우와 같은 의병의 영웅적인 활약에 힘입어 극복되었으므로, 월천의 예견이 크게 빛나가지 않았다고 하겠다. 한편 월천은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순국한 鶴峯 金誠一과 近始齋 金垓를 추모하는 시를 남겨 그들의 영웅으로서의 재질을 부각시키고, 불타는 적개심과 忠憤 그리고 烈氣를 찬양하기도 하였다<sup>46)</sup>.

年譜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방장관들이 전화를 입을까 두려워 도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월천은 예안현감을 불러 城을 비우지 말도록 하였고, 그 자신 또한 의연하게 서당을 지키며<sup>47)</sup> 義兵(鄉兵)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섰다.

43) 月川集, 권1, 13쪽, 「感時」.

44) 月川集, 권2, 10쪽, 「甲午陳情疏」: 伏以臣今年七十一矣, 已非從仕之時, 第以國家慘遭吾東千古所無非常之賊變, 去歲都城失守, 車駕西幸, 臣於此時, 身伏嶺外, 茫茫天地, 處處四方, 靡瞻靡依, 西向痛哭, 不啻如赤子之失其父母, 而號于中野, 至於還都之日, 又不得奔走跋涉, 以重都天日之餘輝, 心常痛恨... 乃以今月初三日起程, 十三日方達都城, 則滿目丘墟, 不覺墮涕.(宣祖 27, 월천을 軍資監主簿로 부르자 이를 사양하기 위해 올린 상소이다.)

45) 脚注 15)의 「磨刀吟」을 참조.

46) 「挽金士純」(권1, 13쪽): 亂世英才敵慨誠, 君羞未雪夢先驚, 同門情義那堪慟, 烈氣猶看萬丈橫. 「挽金義將達遠」(권1, 13쪽): 偉度英才又妙齡, 飛黃騰踏奮雲程, 時危世亂懷忠憤, 兵義師貞敵愾誠, 星隕龍營天不怒, 屍歸馬革志難成, 君家父子連三契, 七十年翁哭送情.

47) 당시 安東과 禮安은 倭賊의 北上路에서 빗겨나 있었다.

|                            |                        |
|----------------------------|------------------------|
| 비 바람 몰아치는 가을집 저물녘          | 風雨秋堂欲暮時                |
| 종이 가득한 규벽 한 통을 가지고 왔도다     | 滿牋奎壁一筒持                |
| 파란이 넘치는 글은 어찌 이리도 씩씩한지     | 波瀾起伏詞何壯                |
| 순수한 충성심은 귀신도 또한 슬퍼하겠네      | 肝膽精忠鬼亦悲                |
| 자고로 억센 무리들은 끝내 모조리 섬멸되나니   | 自古強梁終殄滅                |
| 지금의 계획은 참으로 웅결차고 기이하다      | 只今籌策儘雄奇                |
| 천심이 바뀌지 않고 인심도 조선을 사모하니    | 天心不改人思漢                |
| 옛 궁전에서 조정의 의식이 거행됨을 다시 보리라 | 重觀朝儀舊殿瞻 <sup>48)</sup> |

이 시는 당시 예안현감으로 있던 梧峯 申之悌(1562~1624)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월천은 작품의 尾注에서 “군대를 모아 적을 토벌하는 의거가 있음을 들었기에, ‘웅기’라는 말을 썼다.(聞有糾旅討賊之舉故有雄奇之語)”고 하였다. 아마도 오봉이 擧義를 촉구하는 檄文을 가지고 월천서당을 찾아들었던 모양이다<sup>49)</sup>. 시에서 내용이 悲壯하다고 격찬한 글도 격문으로 보인다. 이 시에서도 월천은 왜구의 소탕을 낙관하며, 擧義를 고무하고 있다. 또한 그는 천심과 인심이 아직 조선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여, 임란으로 사실상 국가관리 능력을 상실한 조선왕실에 대한 충성과 신뢰를 보내고 있다.

환도의 소식을 듣고 감회를 읊은 작품 속에서도 여전히 忠君憂國의 情念이 절절하게 묻어 나온다.

|                            |                        |
|----------------------------|------------------------|
| 임금께서 환도하신다는 소식을 기쁘게 들었거니   | 欣聞大駕自西還                |
| 이 년 사이에 종묘사직이 다시 평안하게 되었구나 | 宗社重安二載間                |
| 영남의 미천한 신하는 몸이 늙고 병들어      | 嶺外微臣身老病                |
| 마음은 간절하나 용안을 바라볼 길이 없어라    | 懸心無路望天顏 <sup>50)</sup> |

일찍이 선조에게 사온한 몸으로 의주로 몽진 할 때 호종하지 못했고, 환도하는 날에도 알현하지 못한 불충에 대한 자괴감과 자기변명이 아울러 표현되었다.

전쟁의 와중에도 꽃은 피고 계절은 바뀐다. 월천은 늦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

48) 月川集, 권1, 13쪽, 「次邑主申順夫之悌」.

49) 6월 초부터 縣監을 비롯한 禮安 선비들은 月川書堂을 방문하여 擧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金垓를 의병장으로 하는 禮安義兵이 조직되었다. 抄錄 「壬辰倭變日記」, 5쪽, 「六月一日條: 蔡衍來見, 相議義兵之舉. 六月二日條: “蔡衍朴守道來見相議, 午後城主與奉化史鄭仁厚, 因事來議.” 梧峯集, 附錄上, 3쪽, 李光庭撰 「行狀」; “(辛卯) 秋除禮安縣監…翌年壬辰遭倭變, 領兵赴東邊, 聞賊充斥內地, 還守本縣. 安集使以安東無守, 檄公兼任, 仍招集兩邑兵民, 親領赴龍宮地, 遮截賊路, 兵散而還. 賊自安東犯本縣, 公更謀擧兵, 賊退乃止. 當亂初, 搶攘之日, 列郡守令, 皆棄城逃竄, 而公以白面書生, 獨提兵奮義, 爲退賊之計, 時論趨之, 巡察使以公不離任所, 論啓賞職, 兼禮曹正郎春秋館編修官.”

50) 月川集, 年譜, 13쪽에서 인용. 月川集에도 환도를 기뻐하는 시 한 편이 실려 있다. 「聞車駕還都」(권1, 13쪽-14쪽): 地轉天旋癸巳秋, 謳吟此日慰民愁. 曾霑聖澤嗟吾老, 遙望天門隔嶺頭.



는 淸吟石 주변에서 노닐고 나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                               |                        |
|-------------------------------|------------------------|
| 단풍잎과 국화꽃이 온 눈에 가득한 가을인데       | 赤葉黃花滿目秋                |
| 벽계수와 청산은 사람을 시름겹게 하는구나        | 碧溪靑嶂使人愁                |
| 변방의 적들을 소탕하지 못하여 한탄만 늘어갈재     | 邊塵未掃猶多憾                |
| 임 생각에 태양을 향하여 머리를 몇 번이나 들었던가? | 望日思君幾舉頭 <sup>51)</sup> |

월천은 “경치가 아무리 좋지만 時事가 이와 같으니, 悲感을 이길 수 없다.”<sup>52)</sup>고 하여, 詩想이 침울하고 어둡게 전개된 것은 불안정한 전시상황 탓이라고 했다<sup>53)</sup>. 이는 마치 杜甫의 「春望」에 나타난 意境과 유사하다.

전황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명의 원군은 왜와 강화를 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월천은 임진전쟁의 승리를 낙관하고 있었기에 실력으로 적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 무렵(1596년) 체찰사로 있던 梧里 李元翼이 월천서당을 찾아 들었다. 오리의 방문을 받고 월천은 이렇게 자신의 심회를 읊었다.

|                           |                        |
|---------------------------|------------------------|
| 오년의 전쟁으로 싸움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 五載干戈已厭兵                |
| 황조(명)에서는 오직 강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네 | 皇朝惟冀講和成                |
| 문득 국가와 백성들의 원통한 마음을 생각하니  | 却思宗社生靈痛                |
| 만세를 내려가도 이날의 통분을 잊기 어려우리  | 萬世難忘此日情 <sup>54)</sup> |

월천은 강화가 이루어지면 즉시 철군하여야 하나 왜군의 만행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에서 적들의 강화주장은 하나의 속임수라고 판단한 바 있다<sup>55)</sup>. 그래서 「甲午陳情疏」에서 말하기를, “백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의 생령을 살육하고 우리의 종사를 탕복하고 우리의 능침을 훼손하였는데, 돌아가지 않은 채 우리 영토에 가득차 있으면서 어떻게 강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sup>56)</sup>라 하면서 금나라와의 강화를 주장했던 송나라의 재상 秦檜가 나라를 망친 선례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sup>57)</sup>. 당시의 재상이 西厓 柳成龍이었으므로 이는 곧 서애를 지목하여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월천과 서애는 불편한 사이가 되

51) 月川集, 年譜, 13쪽에서 인용.

52) 같은 글, 같은 곳: 雲物雖好, 時事如此, 令人不勝悲感耳.

53) 「和金攄續仲光續」(권1, 18쪽.), 「金而和中攄以酒來訪」(권1, 16쪽) 등도 이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54) 月川集, 권1, 15쪽, 「李體察公勵元翼見訪」.

55) 張浩重의 논문(1993), 40쪽-43쪽, 「講和誤國論」을 참조.

56) 月川集, 권2, 11쪽, 「甲午陳情疏」: 豈有率百萬之師, 屠戮我生靈, 蕩覆我宗社, 隳壞我陵寢, 彌漫境上, 不去而謂之講和哉.

57) 같은 글, 같은 곳: 昔金人以此愚宋, 宋以此自愚, 當時宰臣秦檜, 以此誤國, 萬世之下, 猶爲切齒, 此則殿下之所深鑑也

었고, 후인들 사이에서도 '講和誤國' 4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던 것이다<sup>58)</sup>. 위의 작품에서 이같은 월천의 '강화오국론'이 抒情自我的 목소리를 통해 생생히 전달되고 있다.

### 3. 月川詩의 風格

퇴계의 문학관을 간략히 검토하므로써 월천시 풍격논의의 실마리를 찾아볼까 한다. 퇴계는 酬唱을 중시하였다. 그는 “酬唱往復은 고인들의 切惻輔仁하는 도리에서 본다면 이미 하찮은 일(末事)이 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輸情寫意하여 諷諭感發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인들이 이를 즐겼다.”<sup>59)</sup>고 하여, 수창의 기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수창은 이처럼 외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動靜, 즉 性情의 상태를 가늠하고, 상대에 대한 완곡한 責善도 용이하기 때문에, 퇴계는 教學上 이를 心性教育의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였다<sup>60)</sup>. 수창시에 대한 퇴계의 관점은 필시 ‘시는 性情의 발현’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문학관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물론 퇴계는 ‘存養省察’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성정미의 여하가 결정된다고 하는 성리학적 입장에 서있다. 이러한 견해를 조금 발전시키면, 성정미의 여하가 곧 인격미의 고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결국 퇴계는 성정미의 반영이 인격미이며 이 인격미가 형상적으로 체현된 것이 文藝美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시가예술의 풍격 역시 인격미, 성정미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월천시의 풍격을 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성정과 인격 그리고 문예의 관계를 일원적으로 다루려고 한 퇴계의 관점을 수용하여 풍격논의를 시작해 볼까 한다. “풍격이 바로 그 사람이다.”<sup>61)</sup>는 관점에 서서, 인

58) 李樹健 교수의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389쪽-390쪽, 562쪽-563쪽, 579쪽, 一潮閣, 1995)를 참조.

59) 陶山全書 제3책, 516쪽, 「與黃仲舉」: 酬唱往復, 自古人切惻輔仁之道觀之, 已爲末事, 而猶有輸情寫意諷諭感發之快, 故古人樂之

60) 李鍾虎, 「退溪美學의 基本性格 下」, 153쪽-154쪽(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89)을 참조. 퇴계가 수창을 통해 월천의 성정미를 파악하고 친절히 교양한 내용이 師門手簡에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李章佑 교수가 「師門手簡에 나타난 退溪詩와 詩評」(『겨레의 큰 스승 퇴계선생의 편지』, 87쪽-106쪽)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퇴계는 월천시를 보고 차운한 시에서 “學絕今人豈有師, 虛心看理庶明疑, 因風寄謝趙林鳥, 只自知時莫強知.”라 하여, 월천이 ‘誇逞矜負’에 치우쳐 謙虛·斂退·溫厚한 기상이 적다고 판단하고 進德修業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충고하였다. 이같은 비평태도는 퇴계가 문예는 학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품의 의경을 판단함에 있어서 文人騷客의 懷抱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儒者의 學問義理에서 나왔는가를 엄격히 구분하려 하였다. 이러한 문예인식이 월천의 작품을 詩人趣味에서 보지 않고 學問意思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以詩人趣味論之, 亦其得意, 然以學問意思看來, 正恐病處在此句上.)

61) 中國 北京大의 袁行霈 교수는 일찍이 그의 논저 『中國詩歌藝術研究』(李鍾虎의 옮김, 8쪽,

격분석을 통해 시가풍격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월천의 인격을 분석하므로써 시가의 풍격을 유추해 보기로 한다<sup>62)</sup>.  
먼저 祭文과 輓詞, 神道碑銘 등에서 월천의 성품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가?

- ① 천부의 바탕이 질박·성실하고(質慤), 성격 또한 간단·솔직하였다(簡率).<sup>63)</sup>
- ② 바탕은 단단하고 성실했으며(確實) 성격은 엄숙하고 굳세었다(嚴毅).<sup>64)</sup>
- ③ 타고난 성품이 강직하고 굳세었다(剛毅).<sup>65)</sup>
- ④ 선생의 덕은 剛毅하고 篤實하였다.<sup>66)</sup>
- ⑤ 강직한(剛方)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유독히 두터웠다.<sup>67)</sup>
- ⑥ 선생은 성품이 謹嚴·深厚하고, 품행(踐履)이 단정하고 성실(端實)하였으며, 자연에 맡겨(任眞) 天然스러워, 인위적인 꾸밈(矯飾)을 일삼지 않았으니, 대개 그 곳으로부터 얻은 것이 이와 같았다.<sup>68)</sup>

諸家들의 기술에서 공통되는 월천의 성격은 강직성(剛)이다. 퇴계도 월천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남의 의견을 虛受하지 않고 고집을 세우는 剛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지적한 바 있다<sup>69)</sup>. 다음 시는 강직하고 진솔하며 근엄한 월천의 성품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                     |                      |
|---------------------|----------------------|
| 사업은 건백을 부끄러워 하고     | 事業羞堅白                |
| 공명은 한청을 부끄러워 한다     | 功名愧汗靑                |
| 몸을 행함에 한번의 승낙을 중히하고 | 行身一諾重                |
| 의를 취함에 만금도 가벼이 한다   | 取義萬金輕 <sup>70)</sup> |

‘堅白’이란 굳고 곧은 志操를 뜻하고<sup>71)</sup>, ‘汗靑’은 역사책을 뜻한다. 월천은 시에서 사업을 행함에 지조에 반하지 않고, 공명을 추구함에 역사에 비판 받지 않도록

亞細亞文化社, 1990) 「自序」에서 “시인에 대한 풍격 묘사는 단지 근사치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보는 법도 각각이어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풍격은 바로 그 사람이다. 풍격 연구는 이미 단순한 예술 분석을 벗어나고 인격의 영역에 깊이 들어가므로 시인의 작품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다.”라 했다.

62) 앞서 살펴본 월천의 시세계가 풍격논의의 기초로 작용함은 물론이다.

63) 月川集, 附錄, 2쪽, 鄭述 撰 祭文: 天資質慤, 性又簡率

64) 月川集, 附錄, 3쪽, 金澤龍 撰 祭文: 確實之資, 嚴毅之量.

65) 月川集, 附錄, 권6쪽, 權宏 等 安東儒生 撰 祭文: 資稟剛毅.

66) 月川集, 附錄, 6쪽, 李權 等 三溪書院 儒生 撰 祭文: 剛毅篤實, 先生之德.

67) 月川集, 附錄, 7쪽, 鄭經世 撰 輓詞: 剛方氣度天偏厚.

68) 月川集, 附錄, 4쪽, 「神道碑銘」: 先生性謹嚴深厚, 踐履端實, 任眞天然, 不事矯飾, 蓋其得於天者如是.”

69) 師門手簡, 제 30차 서간: 公雖自負於剛, 而不盡爲剛善, 反多出於強戾暴悍之病, 少無謙恭遜順虛以受人之意, 其害德妨物, 有甚於琴君之爲, 吾恐執此終身, 不霽變以至道, 卽德不可進.

70) 月川集, 권1, 13쪽, 「鄭廷器璉來訪 留示一絕 仍次其韻」.

71) 論語 「陽貨」: 不曰堅乎, 磨而不磷, 不曰白乎, 涅而不緇

해야 하며, 또한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신중을 기하되, 한 번 허락한 일에 대한 의리는 어떤 경우라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월천의 강직한 성품은, 퇴계의 지적처럼 주관주의의 폐단에 흐르게 할 위험도 없지 않지만, 그로 하여금 심각한 궁핍속에도<sup>72)</sup> 安貧樂道할 수 있게 하고, 적에 대한 '講和不可'의 자세를 굳게 지켜나가도록 했으며, 퇴계에 대한 尊師繼志의 의지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만들어 오늘날의 월천이 있게 한 것이다. 월천은 實이 없이 名分에만 얽매어 사는 세대를 미워했다. 그리하여 제사지낼 때가 아니면 명주나 비단옷을 입지 않았고, 평시에는 베옷과 짚신차림을 고집하였으며, 만년에 이르러 곤궁하여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되자 平涼笠(패랭이)을 즐겨 썼으니 비록 宰相을 만날 때라도 그와 같이 했다고 한다<sup>73)</sup>. ①에서 寒岡이 말한 '簡率'은 ⑥에서 桐溪가 언급한 '任眞天然'과 통하는 것으로, 월천이 꾸밈과 번잡함을 싫어하고 簡單하고 淳朴하며 率直淡泊한 것을 좋아했던 성격을 가리킨 것이다.

이처럼 簡率하고 天然한 성격은 剛直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거니와 여기에 또 한 도학자의 謹嚴한 기풍도 곁들여져 있다. 桐溪는 그가 "간혹 陶淵明詩集과 邵康節의 擊壤集, 濂洛風雅 등의 시를 외웠는데, 聲音이 화기롭고 씩씩(和壯)하여 똑똑하게 들을 수 있었다."<sup>74)</sup>고 하였으니, 월천시의 풍격이 田園詩로 유명한 도연명이나 觀物詩의 대가인 소강절의 그것과 소통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도연명과 소강절의 시가풍격은 꾸밈이 없으면서도 사상성이 풍부하다. 鶴沙 金應祖도 월천집 「跋文」에서 "한 자 한 구도 性情에서 流出되지 않은 것이 없어 學問의 格言이라 하겠으니, 진실로 이른바 '도를 실는 그릇(載道之器)'이라 하겠다. 그의 경지는 文翰하는 선비가 이리 저리 고치고 남의 시구를 몰래 표절하여 공교로움만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sup>75)</sup> 하여, 월천시가 지닌 도학적 성격을 부각시킨 바 있다. 하지만 월천의 시세계에서 보았듯이, 월천시가 鶴沙가 말한대로 도학적

72) 월천의 가난은 초년시절부터 평생 그를 따라 다녔다. 鄭經世는 輓詞에서 "可憐身後無長物, 廚下簞瓢架上編"라 하였는데 그 注에 "聞先生易簣之日, 瓶無斗粟云"이라 하였으니, 그가 얼마나 궁핍한 생활을 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師門手簡에 보면, 퇴계가 월천의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쌀을 보내주었다는 기록이 보일 뿐 아니라, 實錄에 말이 없어 상경을 하지 못한다는 구절이 보이기도 한다. 이로 보면, 월천은 그와 친분관계가 있던 지인이나 외부의 방문객들로부터 받은 선물에 힘입어 궁핍한 생활을 어느 정도 감당해 낸 것 같다. 이를 양반들의 '贈答經濟'라 말하는 이도 있는데(『兩班』, 宮島博史, 노영구 옮김, 도서출판 강, 1996), 그의 시작품 가운데 선물을 보내준 이에 대한 감사의 정을 표현하고 있는 시가 간혹 눈에 띄기도 한다. 그러나 韓百謙이 輓詞에서 "至樂還在塵空"이라 한 바와 같이, 월천은 궁핍 그 자체를 즐기며 존엄한 인격을 굳게 지켜나갔던 것이다.

73) 月川集, 年譜, 12쪽: 閒居, 布衣草屨, 未祭祀, 則未嘗服紬帛之屬... 至晚年, 窮不能具衣冠, 喜着平涼笠, 雖見卿相, 亦如之.

74) 月川集, 附錄, 5쪽, 「神道碑銘」: 或誦淵明擊壤集濂洛風雅等詩, 聲音和壯, 了了可聽.

75) 月川集, 「跋文」: 一字一句, 無非性情中流出, 問學上格言, 實所謂載道之器也. 其與文翰之士, 東吟西抹, 剽略潛竊爲工而已者, 異矣.

설교로만 시종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월천시가 표절과 조탁을 일삼는 문인들과는 구별된다는 지적은 옳다. 自然한 그의 성격이 이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계와 학사의 언급에서 우리는 다시금 월천의 簡率하고 謹嚴篤實한 인품이 시가 창작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월천시의 미학적 완성도는 논외로 하고, 월천의 시가풍격을 인격과 관련 지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월천의 강직한 면은 雄渾(혹은 雄建)<sup>76)</sup>에 가까운 풍격을 형성하고, 간술하고 천연한 면은 自然<sup>77)</sup>에 가까운 풍격을 형성하며 근엄한 면은 平淡<sup>78)</sup>에 가까운 풍격을 형성한다고 보겠다. '평담'은 도학자들의 일반적인 시가풍격이지만, 월천이 그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기상의 '웅건'함과 표현의 '자연'함일 것이다.

#### 4. 마무리

월천은 순수한 처사도 아니고 전문적인 시인도 아니다. 따라서 월천이 월천된 소이는 그의 인간성과 선비정신에서 찾아지는 것이지, 얼마 되지 않는 시나 논설을 분석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필자는 감히 월천의 월천된 소이를 시를 통해 탐색하려 하였다. 또한 시분석을 시도하긴 했으나, 정작 핵심인 월천시의 예술적 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유보해둔 채, 감상에 치중하므로써 변죽만 울리고 만 셈이 되었다. 글을 마무리 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월천시의 세계와 풍격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잠시 언급하기로 한다.

월천의 시는 載道的 문학관을 바탕으로 居敬窮理와 存心養性, 隱不遺世와 行不苟合 그리고 倭寇侵入과 國難克服의 과정에서 창작된 것으로 處士文藝의 범주에 속한다. 월천의 한시창작은 16세기 예안지방의 전원산수와 재지사족 출신의 퇴계 학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 내면에는 질박한 예안의 鄉土情調와 침착한 性理學的 觀照가 저류하고 있다.

76) 雄渾은 雄建하여 힘이 있으며 전혀 自然스럽게 이루어진 예술풍격이다. (『中國古代文學理論辭典』, 504쪽, 吉林出版社, 1985).

77) 自然은 造作이나 彫飾과 상반되는 것으로 眞淳·質朴·清新한 예술풍격이다. (앞의 책, 506쪽).

78) 平淡은 평범하거나 천박한 작품의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소박하고 평이하면서도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풍부하고 심각한 사상내용을 표현하므로써, 淡遠深邃한 예술풍격을 창조해 낸 것을 이른다. 따라서 平淡한 예술풍격을 창조해내기는 쉽지 않다. 갈무리된 심각한 사상내용을, 독자에게 솔직한 언어로 설명하지 않고, 함축된 예술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므로써, 독자들이 言外의 뜻(맛)을 찾아 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책, 513쪽-514쪽)

월천은 퇴계와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사에 대한 관조와 사색을 통하여 天人合一의 경계를 체인하려 노력하였다. 월천한시가 보여준 특징국면의 하나인 '沈潛心得'의 경계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자연과 인사에 대한 심각한 도리를 담은 '침잠심득'의 경계는 그의 謹嚴·篤實한 성품과 平淡·自然한 풍격이 잘 반영되어 있다. 월천은 일상의 산수체험과 자연친화에서 우러난 淸淨灑落한 기상과, 物外間適하는 처사의 심회를 眞率하게 표출한 한시를 상당수 창작하였다. 이렇듯 '蕭散山水'의 興趣가 융해되어 있는 작품들에서 우리는 情(主觀情意)·景(客觀物景)의 무리없는 交叉와 매끄러운 契合을 엿볼 수 있거니와, 월천의 簡率하고 天然한 기질도 넉넉하게 느껴 볼 수 있다. 월천은 말년에 임진왜란을 겪게 된다. 평온한 산림의 정적을 뒤흔든 왜란의 발발로 인해 월천의 시세계는 보다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퇴계가 가고 없는 예안에서 월천은 지도력을 발휘하여 향토수호와 국난극복에 뛰어 들었다. 그는 향토수호를 위해 향론을 고무하여 향병을 조직하고, 왜란의 수치를 씻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 화의를 배격하였다. 국가와 향토를 향한 월천의 마음은 그의 剛毅한 기상을 바탕으로 雄健하고 悲壯한 風格美를 체현한 한시창작으로 이어졌다. '憾慨憂思'의 衷情이 표출된 작품속에서 월천은 왜적을 향한 불타는 적개심, 老病으로 인해 전장에 직접 참가하지 못한 한탄, 신하로서 국왕을 호종하지 못한 불충의 여한, 영웅적인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산화한 동지들에 대한 추모와 예찬을 담아 내었다.

許眉叟의 안목을 빌어 검토한 위의 세 가지 특징국면은 월천시의 경우에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없다. 비슷한 시기를 살다간 다른 처사층의 한시에서도 그같은 지향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월천의 경우, 그가 처한 공간적 상황과 기질적 요인이 다름으로 해서 다소 그 양상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월천 한시의 대중을 이루는 贈答酬唱詩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증답수창시는 처사한시의 가장 일상적인 창작형태이다. 16세기 퇴계학단이 추구한 한시창작의 일반규범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증답수창시는 일정한 상대를 전제로 하기에, 월천의 교유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월천문집 이외에 그와 교유했을 인사들의 문집을 조사하여 관련자료(편지나 한시 등)를 수집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이어질 때, 월천연구는 비로소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